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6> 형편 따라 베풀지어다

앞서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의 근간이 되는 계정해 삼학을 설명했다. 이 장부터는 보시, 성 안 내는 것, 인욕, 정진, 주력 공부, 예배, 염불 등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편에 대해 설명해 나간다. <선가귀감> 46장에서는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 해탈에 이른다고 이야기 한다.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真布施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형편 따라 베풀지어다. 그들을 나와 한몸처럼 알고 베푸는 큰 자비로운 마음이 참 보시니라.

랍들을 보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힘이 닿는 대로 재물을 베풀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삶이 덧없는 줄 알고 갖고 있는 재물을 삼보를 공양하고 수행자의 공부 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 공덕으로 갠지스 강 모래알보다 많은 복덕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재물을 베풀어서 세간의 헛된 집착을 없애 성불할 수 있는 '재보시'이다. 또 중생들이 재난을 만나 두려워하

보시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니 보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첫째 보시 받을 사람의 덕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평등한 마음으로 두루 보시를 하되 원수나 친한 이를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행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아하고 받드는 마음을 내고,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둘째는 보시 받을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저마다 바라는 바를 따라 널리 잘 살펴서 넉넉하게 재물과 법으로써 이익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신분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귀하고 천한 사람을 제멋대로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이나 부처님의 법을 두루 다 정성껏 보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보시를 원하

사람도 공성이며 오가는 재물이나 법도 공성이다. 이 모든 것이 공(空)일 때 또한 공이라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 보시하여 베푸는 힘도 없었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곧 참다운 보시이며 온갖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를 여의니 <사익경>에서는 '보살이 마음에서 모든 번뇌를 버리는 것이 보시'라고 하였다. 이런 보시에 대하여 <심지관경(心地觀經)> 계승에서도 말한다.

能施所施及施物 於三世中無所得 我等安住最勝心 供養一切十方佛

베풀 사람 받는 사람 오가는 모든 사물 / 과거 현재 미래 삶에 취할 것이 전혀 없어 / 텅 빈 총만 광명 속에 우리들이 안주하니 / 사방세계 부처님께 참된 공양 올립니다.

이 계승의 뜻은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오가는 시주물품, 이 세 가지는 공성이어서 조금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온갖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시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시주물의 참존재는 모두 알고 보면 본디 실체가 없는 공이므로 베푸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으며 오가는 물품 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나'라는 번뇌로써 보시에 집착할 공덕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주는 사람[自]이 없고 받는 사람[他]이 없어 부처님 마음으로써 하나가 되니 이 세상에 오면서 가져 올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 갈 것도 없는 부처님의 참살림살이가 된다.

텅 빈 총만, 이렇게 참공덕인 부처님 광명 속에 오가는 참된 삶만 있을 뿐이므로 사방세계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自他爲一 日 同體 空手來空手去 吾家活計

나와 남이 하나로서 둘이 아닌 것 / 이를 일러 똑같은 한 몸이라 하고 /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살림살이로다.

■ 원운 스님(송경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수행은 단순한 것



모든 중생들 한 몸처럼 알고 베풀어야 '참 보시'

주고 받는 이 모두 쏘이니 인연에 집착 말아야

면 편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써 주변을 어머니처럼 감싸 주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써 두려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무외시'다. 또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고 있는 대로 온갖 방편을 써서 법을 말하지만 명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삶은 물론 법을 듣는 사람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하고 그 공덕을 깨달음에 회향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법을 설명으로써 이 공덕으로 뒷날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한다. 법보시의 공덕은 다른 보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구걸을 보더라도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 없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거칠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칠고 추한 말로 그들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할 때 모든 중생들을 똑같은 한 몸처럼 알고 베푸는 큰 자비로운 마음이 되니, 이것이 '참 보시'이다. 그 베푸는 힘으로써 선과 악의 성품을 없애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을 없애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곧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의 성품이 공(空)인 줄 알게 된다.

베푸는 사람도 공성(空性)이요, 받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합장(合掌)

TV에서 유명인들이 합장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불자였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지요? 아마도 불교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중의 하나가 고개 숙여 합장하는 모습일 겁니다. 만천하에 항복하고 겸양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칼산지옥같은

같은 마음바탕을 비탄지옥으로 깨는 낮춤입니다. 합장은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형식과 법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틀은 있습니다. 우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지요. 비의 아름다움이 익어서 숙임이 있듯이 숙임은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몸가짐이지요. 손바닥의 합침은 음과 양의 합침이요, 나와 다른 세상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미 합장하는 순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오래 합장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떨어지곤 합니다.

다.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런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대개 합장한 손과 가슴과의 사이에는 주먹하나 들어갈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팔목은 명치끝에 오면 편하지요. 하다보면 손이 처지게 됩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구렁이에 대주면 관절 힘이 덜 듭니다. 보통 합장은 반배와 어우러질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장반배(合掌半拜)입니다. 절집에선 어릴 기나 합장반배만 하면 안 사형통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7강 혜능의 실천적 충고

13장은 지금까지의 독특한 설파에 '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 명명 이 후, 오해를 부를까 싶어, 몇 가지 다짐을 잊지 않았다. 혜능은 이 피날레에 대고 무슨 노파심을 언설했을까, 그는 다음에 보듯이 <금강경>의 불이(不二) 법문을 실천적 권유로 언급화해 놓았다. 이로써 자칫 머리로 이동하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시 두 팔과 다리로 착실히 내려온다. 그것이 혜능 언설의 매력이고 존재이유다. 그 실용주의적 오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통적 <오가해>의 판본에 따라 장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다.

(본문 13-1절)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名為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即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합치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이 명명은 다만 임시적이지니라. 혜능 또한 반야바라밀

왜냐. 수보리야, 부처(인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 하지만, 이는 기실 (실제로서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전체로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목조 13-1)

“佛說般若波羅蜜, 令諸學人用智慧, 除卻愚心生滅, 生滅盡盡即到彼岸. 若心有所得即到彼岸, 心無一法可得即到彼岸. 口說心行乃是到彼岸也.”

“부처가 이렇게 말씀 반야바라밀을 설한 것은 여러 학인들로 하여금 지혜를 발휘해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生滅)'을 제거토록 하고자 함이다. 생멸이 다한 곳, 거기가 부처의 안이다. 여기 만일 '얻은 바 있다(有所得)'는 마음이 들면 피안에 이르지 못한다. 마음에 그 무엇(法)도 얻을 수 없다는 진실로, 투철하면 그는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치를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실천해야 피안에 이를 수 있다.”

(부연 13-1)

불교는 가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가 오랜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하여 불교의 '지혜'가 실제 작용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이다. 혜능 또한 반야바라밀

의 타겟이 '우심생멸(愚心生滅)의 제거'라고 분명히 적었다.

“우심생멸(愚心生滅)”은 '어리석은 마음에 오가는 생멸'이다. 아니 '어리석은 심생멸(心生滅)'로 읽을 수도 있다. 짐짓 <대승기신론>의 어법을 차용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기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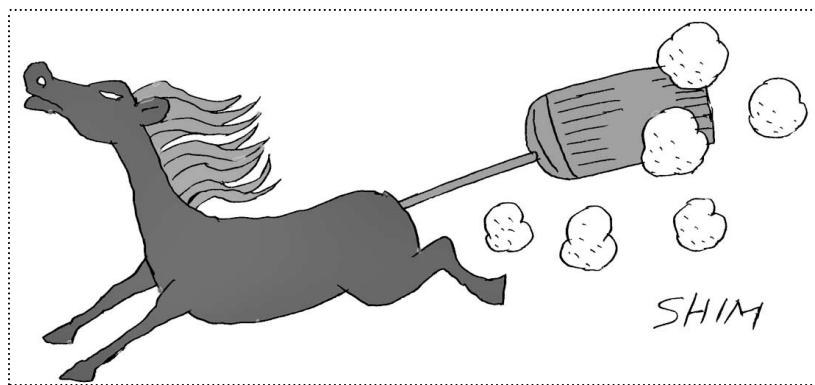
두 가지 마음, 체용(體用)
<대승기신론>은 '마음'에는 두 종류가

내 마음을 오가는 흔적들, 크고 작은 파도들을 심생멸(心生滅)이라고 한다. <기신론>은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선 오해 하나를 적어두고 가야겠다. 간혹 심진어는 좋은 것, 그리고 심생멸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의 바탕(體)을 적절히 운용(用)하는 데 있다. 고목사회(枯木死灰)를 어다 쓰겠느냐. <대승기신론>은 건전한 심생멸(心生滅)을 목

악은 '있는 그대로.' 그의식의 빛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 불교는 우리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가, 즐거움만이 가득차 있다고 사기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구성하는 연쇄 고리를 보다 분명히 알고, 그 뿌리가 인간의 원초적 무지와 맹목적 욕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고, 사물의 실상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그 자각이, 그 반야바라밀이 우리의 고통을 털어주고, 존재에 위안을 주며, 궁극적 평안의 언덕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다. "오로지 밖을 향해 뒀을 하지 마라. 고통은 대부분 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18계(界) 이론을 통해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18계에 세 가지 영역이 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는 '감각기관'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둘은 '각각 자료', 즉 대상과 환경이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함- 가 이들을 연관짓고 인식과 판단을 구성하는 '입법적 작용'이다. 여기 환경과 대상, 여건은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오직 하나를 구성할 뿐이다.

“아무 것도 태어나지 않는다”



표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두 가지 심생멸(心生滅)

<기신론>은 생멸하는 마음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각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부자각의 마음이다. 여기서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이다.

살이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삶을 '보는' 자의식의 불투명성, 불철저함이 기인한다. 삶의 추환과 아름다움, 선과

깨어있는 자각적 주시는 우리네 고통을 '자원'으로 묶어놓고, 의식으로 하여, 오해로 하여 증폭되거나 파생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삶의 고통은 환경이나 상황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심리적 정서적 개인적'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주어진 재난을 더 듣듯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작은 금전적 손실이나 자존심의 상처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

부연 먼저에 덮인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生滅)'이란 부자각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활동들을 가리킨다. 이들 '소위된 심생멸'은 작은 일에 쉽게 자극받고, 심리적 정서적 자의식이 강하다. 자기만의 독단을 객관적이라 자부하며 과거의 기억에 현재를 묶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장밋빛 환상을 걸기 쉽다. <대부>에서 기억나는 명대사가 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흐린다." 조바심과 원한, 편견이 작동하면 현재의 실상을 여여하게 인식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의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금강경>이 적고 있듯, 세상은 너와 내가 평지풍파(平地風波)로 일어난 먼지로 뿌우었다. 흙사 여름날 빗자루를 쫓기에 단말이 한바탕 히히거러며 춤을 춘 것 같다.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풍경이 그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사람들이다. 무의식에서라도 신호가 왔기에 독자들은 이 글을 보고 있다. 그 발심(發心)만으로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다. 그 신호를 따라 가다보면 적절한 계기와 절차를 거쳐 그리던 평화와 아타락시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뜻을 굳게 가지시지 마라.

■ 한국학중앙연구원